

청소년영화제의 형성과정과 영향요인

Youth Film Festival : its Evolution History and Influence

오세섭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Se-Sub Oh(filmhead@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영화제의 형성과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영화제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1997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주요 청소년영화제들이 개최되어 영화제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던 청소년영화제는 2008년에 이르러 온라인 상영을 실시하는 등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HD캠코더와 스마트폰의 등장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영상산업과 문화적 흐름에 호응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영화제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시민단체의 성장, 영상기술의 발전과 대중화, IMF 구제금융시대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문화·교육적 요인으로는 영상문화의 융성, 대학입시와 수상실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영향 속에서 청소년영화제는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형성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 중심어 : | 청소년영화 | 청소년영화제 | 시민단체 | 대학입시제도 |

Abstract

In this study, we're going to look at the formation process of Youth film Festival and factors affecting that process. The Youth film Festival didn't appear suddenly in a day. There have been various trial regarding media education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GO) until the mid 1990s, principal Youth film Festival has been held from 1997s to 2001s and established a framework for Youth film Festival. There were some progress after those times and then in 2008 Youth film Festival faced some changes such as screening online, and responded rapidly to the current image industry and the cultural stream like the appearance of HD camcorder and smart phone till now. We can divide two areas regarding factors that affecting those formation process of Youth film Festival. First, they are explained as economic and social factors that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extremely such as the effort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GO), image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MF bailout era and so on, second cultural and educational factors that the rise of virtual culture, the University entrance and results of awards. Thus Youth film Festival has been evolved in various affects, so we can look into the various sections of korea society through these formation process of Youth film Festival.

■ keyword : | Youth-made Films | Youth Film Festival | NGO |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System |

I. 들어가며

1997년 처음 시작된 청소년영화제는 이제 초창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실 있고 체계를 갖춘 영화제로 성장하였으며, 많은 변화와 모색을 거듭한 끝에 청소년 영상문화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영화제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이 만든 영상작품을 상영하는 공간이며, 영상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젊은 세대의 영상 문화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영화창작의 미래를 예견할 수도 있으며,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환경, 즉 학교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펴볼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으며, 작품 속 시대배경을 통해 당시 청소년들의 문화적 취향과 생활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영상기술적인 면에서는 촬영과 편집장비의 변화를 보면서 기술의 발전상과 보급의 범위를 가늠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장이 될 수 있는 청소년영화제이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1990년대 영상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용교는 청소년의 영상문화 수용에 따른 변화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 패션 등 영상문화의 수용과 소비적 차원에서 영상문화와 청소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1], 서곡숙과 김용남은 청소년영화제를 통해 발표된 청소년영화¹⁾들 중에서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2][3].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기반에서 개최 가능한 청소년 디지털 영화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4]. 각 청소년영화제에서는 당해 연도 영화제 개최에 맞춰 영화제 팸플릿을 제작하거나 영화제에서 비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의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그치고 있다.

청소년영화제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과 영상문화라는 두 가지 범주 안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기존의 영화제 연구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초창기 영

상공모전 형태로 시작한 청소년영화제는 이제 국제영화제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제 면에서도 양성평등, 인권, 학교폭력예방, 평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화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영화제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영화를 통해 다뤄진 소재나 주제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기의 특성을 다층적인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영화제에 대한 연구는 향후 청소년 영상문화 연구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개최된 청소년영화제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 그 형성과정과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후 청소년영화, 청소년영화제, 청소년 영상프로그램 등 청소년영상문화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영화제가 시작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형성과정의 진행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영화제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주요 청소년영화제는 대부분 1990년대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영화제는 1등상으로 장관상이 수여되는 경쟁 영화제들이다. 이 점은 청소년영화제의 작동원리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태생과 발전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영화제가 겪어야 할 당면과제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 청소년영화제의 형성과정

현재와 같은 방식의 청소년영화제는 1997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영화제는 처음에는 많은 관심과 화제 속에서 시작되었다. ‘청소년이 만든 영화’라는 신기함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이후 다양한 청소년영화제들이 생겨났으며, 초창기 영화제의 동력이 되었던 정부의 지원, 언론의 관심, 기업의 후원 등이 점차 소진

1) 여기서의 청소년영화는 ‘청소년이 만든 영화’를 지칭한다.

되는 동안 국내의 다양한 사건, 대중기호의 변화, 정권의 교체 등 역사의 과정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왔다.

1. 맹아기 : 1997년 이전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붙은 영화제는 1975년 영화진흥공사 주최로 시행된 한국청소년영화제부터이다. 이 영화제는 1984년 금관단편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6년부터는 금관청소년영화제, 1998년에는 다시 한국청소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영화제’라는 명칭과는 달리 영화를 상영하지는 않았으며, 시상식 위주로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2’)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청소년이 만든 영화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5]. 당시에는 단편영화들이 보통 16mm로 제작되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몇몇 예술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영화읽기 및 감상 교육은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한국천주교의 반예문 신부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매스컴과 미디어교육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는 1983년에 메리놀 미디어교육연구소(Maryknoll Media Education Office)를 설립하였으며 1986년 8월 서울대교구 잠원동 본당의 중등부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였다[6]. 또한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1989년에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였고, 1993년에는 청소년영상제작교육을, 1997년에는 영상제작캠프를 개최하였다.

서울YMCA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영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 영상문화에 대한 감상능력과 비판의식을 갖게 함으로서 우리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자[7]’ 하였다. 이후

1992년부터 1998년까지 9회에 걸쳐서 <어린이 영화 만들기 캠프>를 개최하고 완성된 작품들로 상영회를 개최하였다. 1996년 5월에는 ‘청소년 비디오축제’를 개최하였는데, 338명이 참가하였으며 63편의 작품이 완성되었다. ‘청소년 비디오축제’는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하루 동안 촬영과 편집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일종의 ‘백일장’ 같은 형식이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주최 측을 놀라게 하였다[8].

1980년대까지는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상제작보다는 감상 및 읽기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면 영상기술이 발전하고, 영상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시민단체의 선도적인 영상교육 실시로 청소년 영상제작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0년대 후반, 청소년영화제가 개최되기에 이른다.

2. 형성기(1997-2001)

현대적 의미의 첫 번째 청소년영화제는 살레시오회의 돈보스코 정보문화센터에서 주관하여 1997년에 개최된 제 1회 돈보스코청소년영상제이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은 총 11편이었으며, 상영과 시상을 통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이 작품들은 이후 “EBS 10대 표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등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었다. 2000년에 개최된 4회부터는 기존에 내걸었던 학교폭력이라는 주제 대신 밝고 건강한 청소년을 반영하는 작품을 공모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공모주제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독립영화협회의 주최로 1998년 여름에 개최된 제 1회 고딩영화제는 비경쟁영화제를 표방하였다. 이 영화제의 슬로건은 ‘고딩의, 고딩에 의한, 고딩을 위한’,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위한’이다. 즉 청소년이 직접 만든 영화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상영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독립영화협회의에서는 1회가 개최된 후 청소년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0년 제 3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이 영화제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직접 영화제를 기획하여 청소년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청소년 영화감독과 청소년 관객과

2) 청소년영화제에서 말하는 청소년(青少年)이란 일반적으로 중, 고등학생 혹은 그와 같은 나이대인 13세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는 경우와 청소년기본법 제 1장 3조 1항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까지를 청소년으로 간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청소년기본법 3조 1항,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중, 고등학생 또는 그에 해당하는 나이인 13세에서 18세까지로 정한다.

의 대화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중심의 영화제로 진행하였다. 1회 영화제에서 영과여중 방송반에서 만든 페이크 다큐멘터리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가 상영되어 주목을 받았고, 3회 영화제에서는 당시 대안학교 재학생인 정상문의 중편영화 <진리를 담기엔 테이프가 너무도 짧다>가 상영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화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후원을 받지않는 독립적인 영화제를 지향하는데 따른 예산의 문제, 그리고 시상제도가 없는 비경쟁영화제로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고딩영화제는 2004년 7회 영화제를 끝으로 휴지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고딩영화제의 운영 방식은 청소년에 의해 운영되었던 청소년영화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9].

1998년 서울YMCA에서는 제 1회 청소년영상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총 93편의 영화가 출품되었고, 군인인 아버지와 운동권인 삼촌 사이의 갈등을 통해 한국의 현대사회를 바라본 배원정, 정현철의 영상에세이 <삼대구년(三代久年)>이 대상을, 중학교 일진의 일상을 다룬 영과여중 방송반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특히 이 영화제와 수상작품들은 당시 KBS에서 소개가 되는 등 청소년이 직접 만든 영상물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울YMCA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영상페스티벌은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을 공모 주제로 삼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9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산하 참교육영상집단에서 주최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개최되었다. 이 영화제는 1994년 영상교육연구회라는 모임으로 시작해 참교육영상집단에 이르기까지 매월 진행해온 참교육 영상정기상영회, 영상미디어교육, 영상캠프 등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한 영화제이다. 당시 참교육영상집단에 소속된 전국 200여 명의 교사들이 각자가 지도하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이러한 전교조의 조직적 협력을 통해 단숨에 주요 청소년영화제로 부상할 수 있었다[10]. 청소년영화제로서는 처음으로 일반극장에

서 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국제청소년영화제로서 위상을 구축하였다. 이후 국내 청소년영화제의 각종 표준을 만드는 등 선도적인 청소년영화제로 성장하였다.

한국청소년영화제는 1999년 제 1회 광주청소년영화축제로 시작하여, 2회 때부터 5회까지 광주청소년영상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다. 6회 때인 2004년에 한국청소년영상제로 명칭을 바꾸고 2012년도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년 제 15회부터는 한국청소년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영화제는 서울을 기반으로 한 초기 다른 청소년영화제와는 달리 광주라는 지역성을 가지고 열린 전국규모 영화제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제 1회 광주청소년영화축제가 광주 롯데백화점 야외극장에서 당시 인기 있었던 <신세기 에반게리온> 극장판을 상영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인 축제로 다가가려 하였다면, 2회부터는 조선대학교로 장소를 옮겨 청소년 영화 상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청소년영화제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하여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는 2001년에 제 1회 전국청소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대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 3회부터 12회까지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라는 명칭으로 영화제를 진행해왔으며, 2013년에 열린 제 13회부터는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영화제는 (사)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대전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전국규모 영화제를 목표로 하였다.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는 처음부터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따로 구분하여 작품을 모집하였다. 다른 청소년영화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그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 영화제는 만 24세 이하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는 청소년 보호법의 관점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연령을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영화제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한편, 청소년이라는 상징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낳게 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스스로넷)에

서 주관하는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은 2001년도에 시작되었다. 이 영화제는 학교폭력과 그 예방이라는 주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초창기에는 공모전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자체 방송국과 동아리를 통해 꾸준히 영상작품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미디어센터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영상제작교육과 이론교육, 기자재 대여 등 청소년영상작업을 위해 노력했다. 이 영화제의 특징은 출품자, 청소년자원봉사자 등 청소년들 간의 교류와 관계 형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제 기간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친목행사와 모임을 주선하는 등 전국에서 모인 영상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11]. 이것은 앞서 언급한 청소년 폭력예방이라는 큰 취지와도 부합되는 일일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 우정을 매개로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설립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서로 친목과 교류를 경험할 수 있으며, 영상을 좋아하는 전국의 청소년들끼리 하나의 또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기 심리적 발달에 큰 버팀목으로 자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영화제 간에도 서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각각의 영화제가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으로 청소년영화제라는 연대감을 갖고, 각자의 사명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시기였다. 1999년에 열린 제 2회 청소년영상페스티벌 본선심사 및 시상식에서는 특별상영 형태로 제 3회 돈보스코청소년영상제 수상작인 <무죄>가 초청 상영되었으며 [12], 2000년도에 열린 제 2회 광주청소년영상페스티벌(현, 한국청소년영화제)은 영화제 기간 동안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와 고딩영화제, 당시 부산에서 열렸던 부산청소년영화제 수상작 등을 상영하였다. 또한 참교육영상집단 대표 김종현과 독립영화협회의회의 낭희섭, 부산청소년영화제의 부현도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청소년영상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13].

이러한 활동은 영화제 간의 교류를 통해 각각 청소년영화제를 홍보하고, 초기 청소년영화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각

청소년영화제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현재는 초창기만큼 영화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발전기(2002-2007)

발전기에는 형성기에 등장한 청소년영화제들 뿐만 아니라, 이에 자극을 받은 다양한 청소년영화제와 영상공모전들이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더구나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 전 국민이 새로운 응원문화와 참여활동을 경험했으며[14], 이로 인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활력이 넘쳐나던 시기였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영화제들은 초창기 운영상의 미숙함이 사라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전문성을 구축하였으며, 자체 노력에 따른 성과가 영화제에 반영되는 등 안정적인 운영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 시기의 각 영화제들은 자체적으로 영상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크게 이론 강좌와 영상제작워크숍, 영화캠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살레시오회는 80년대 말부터 미디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90년대 들어서는 돈보스코 정보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제작교육과 영상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국과 대안학교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청소년영상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서울 YMCA는 산하의 건진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시청자시민운동본부와 함께 TV와 영화, 비디오 등 영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90년대 내내 모니터 활동과 비평, 이론 강좌와 제작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영상페스티벌은 청소년 영화아카데미와 청소년 영상제작워크숍이라는 두 개의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이것은 영화토론모임과 청소년방송(YouthTV) 등 청소년동아리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청소년 영상문화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또한 영화감독, 영화평론가들이 강사로 나서는 단기 영화학교를 진행하였으며, 비평캠프와 제작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제작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제영화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외국청소년들의 초청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영상에 대해 배우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국청소년영화제와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 또한 영상캠프와 영화제작워크숍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영상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영상에 입문하고 여기서 만난 다른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상제작에 참여하며 그 결과물이 영화제에 상영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각 영화제를 주관하는 단체들 중에서 돈보스코 정보문화센터와 스스로넷은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영상교육을 위해 2001년에 영상특성화 대안학교를 설립하였고, 2004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점은 청소년영상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 졸업생을 배출한다는 것은 3년간의 교육운영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청소년영화제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영화제를 주관하는 곳은 대부분 시민단체인데 이들은 예산과 인력 면에서 늘 취약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대안학교 운영은 이들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영상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전환기(2008-현재)

전환기에 들어선 청소년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상영 플랫폼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수상작 및 본선진출작 상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청소년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예산상의 제약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몇 영화제에서는 온라인 상영관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터넷 속도 등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결과이기도 하며, 영화제 예산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는 일찍부터 온라인 상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2008년 제 8회 영화제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9회 때는 파란닷컴(Paran.com)과의 제

휴를 통해 파란닷컴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영관을 별도로 구축하였고, 11회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12회부터 13회까지는 아프리카TV와 연계하여 온라인 상영서비스를 실시하였다[15]. 이렇게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작품 전체를 상영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였고, 영화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국공모방식의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한 영화제 측의 고민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청소년영화제의 향후 상영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역시 2008년에 열린 제 8회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 전체를 상영하는 온라인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은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와는 달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상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화제를 운영하는 스스로넷이 서울시의 위탁기관이므로, 서울시의 서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온라인상영관은 다른 영화제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돈보스코청소년영상제와 청소년영상페스티벌, 한국청소년영화제는 자체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역대 수상작을 상영하고 있으며,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도 영화제 기간 동안 본선진출작을 상영한 적이 있다.

온라인 상영관의 도입은 인터넷 기반이 잘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미 기존 포털사이트에는 동영상 게시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튜브 등 동영상 전문사이트의 등장으로 누구나 자기가 만든 영상물을 직접 올려서 관객과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영화제는 기존의 대표성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상영관은 청소년영화제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영은 극장 등 오프라인 상영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서버의 운용, 인력의 보충 등이 필요하며, 청소년영화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와 청소년영화에 사용된 영상과 음악 저작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므로 기존에 영화제를 운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

야 한다.

전환기에는 특히 촬영장비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HD캠코더, DSLR (Digital Single Lens Reflex), 스마트폰 등 다양한 장비가 등장하여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고 있으며, 몇몇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Full HD급의 전문가용 캠코더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촬영장비의 수준과 종류에 따른 다양함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영화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영상기술에 맞는 영상시설과 상영설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II. 청소년영화제 형성과정의 영향요인

청소년영화제의 개최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었다. 처음 청소년과 영상문화의 관계에 주목했던 1980년대에는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저급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16].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영상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읽기, 감상교육 등 영상수용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1990년대부터는 영상제작교육을 병행하였으며, 간단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워크숍과 영상캠프 등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영상에 대한 수용, 감상으로부터 직접 제작에 이르는 프로그램의 변화는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이후 영상제작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망이 커지고 이를 실현시켜 줄 시대적 상황이 뒷받침되면서 청소년영화제라는 획기적인 장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청소년영화제가 형성되어 발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영향요인을 경제·사회적 요인과 문화·교육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경제·사회적 요인

1.1 시민단체의 성장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전보다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수철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성

장한 배경에 대하여, 대내적으로 정치민주화의 진전, 지방자치의 제도화와 국가권력의 분권화, IMF 경제위기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17]. 또한 우리나라는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정치민주화에 따라 시민단체가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노태우 정부 하에서의 느슨한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의 제도화와 국가권력의 분권화 속에서 시민단체가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친시민사회단체적 성향을 가진 김대중 정부의 집권은 정부가 어떠한 동기에서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운동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18]. 이들 중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들이 TV와 비디오, 영화 등 영상문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미디어교육이라는 영역에 발을 내딛게 된다.

이 때 시민단체에서는 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영상문화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첫째로 급격히 늘어난 영상물의 공급 속에서 수용자들이 자신의 시각을 갖추고 영상물을 바라보길 원했다. 그래서 많은 영상관련 시민단체들은 자체적으로 TV와 영화, 비디오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비평집을 발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영상물 감상, 즉 보는 법에 대한 교육이었다.

두 번째로 영상제작 프로그램의 운영이었다. 1990년대는 일반인들도 쉽게 영상제작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기술이 발전하였다. 또한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영상제작 강좌를 개최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간단한 촬영 장비를 대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져진 영상분야의 경험은 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영화제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1980년-90년대까지 청소년 영상문화운동을 이끌었던 당시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장 이승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청소년과 영화라는 화두를 접목시켜서 영화읽기와 감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구요. 이것이 영화(제작)캠프, 그리고 비디오 축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영화를 공부한 청소년들이 다시 자원지도자로 다음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등 영화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서울YMCA)는 영화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영화제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개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약 10년에 걸쳐 차근차근 이런 저런 청소년 영상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가 시민단체로서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도했고, 그런 부분이 다른 시민단체나 사회에 (청소년영화제라는) 어떤 형태를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19].”

돈보스코청소년영상제를 주관하고 있는 돈보스코 정보문화센터의 경우는 영상문화에 대해 동시대의 사회적 흐름에 보다 종교적 관점에서 부응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살레시오회 소속인 박경석 수사는 1980년대 이미 영상문화의 영향력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는 영상문화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올바른 영상물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고 동시에 건강한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20]. 1980년대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미디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분야에 대한 해안이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종교계에서 현대 미디어의 출현과 그 영향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청소년영화제를 주관하고 있는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은 조선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 출신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광주지역에서 대안교육에 헌신하고자 1997년에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들은 대안교육의 한 차원에서 청소년미디어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청소년영화제와 영상미디어교육을 시작하였다[21].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울 수 없는 영상미디어교육과 청소년영화제를 통해 청소년 영상문화에 있어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영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22].

이렇게 출발점은 서로 달랐지만, 청소년영화제를 운

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상문화 시대에 청소년들이 혼탁한 영상물의 단순한 수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밝은 영상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제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 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학교와 같은 정규교육기관이 아니라 시민, 종교 단체 등 사회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의 경직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영상문화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점차 정규교육으로서의 영상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영상기술의 발전과 대중화

1980년대 말 대중들에게 보급된 비디오캠코더는 VHS 테이프를 넣어 촬영하는 방식이었다. 지금에 비하면 훨씬 불편하지만 당시 비디오캠코더와 리니어 영상편집기를 이용하면, 필름으로 작업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영상물을 만들 수 있었다. 여기서 VHS 비디오캠코더는 비디오테크의 보급이라는 우리나라의 산업적 특성과 결부지어 설명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처음으로 상용 판매되었던 비디오테크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으로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하였다. 이 때 비디오테크를 만들던 가전회사들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큰 행사에 대한 녹화 및 재생에 대한 홍보를 통해 비디오테크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가전회사는 판매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행복한 가족의 일상을 간직한다는 측면에서 홈비디오 캠코더의 보급은 또 다른 판매 전략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홈비디오 캠코더는 가정에서도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1995년 소니(SONY)사에서 출시된 DVC(Digital Video Cassette), 즉 6mm 디지털 캠코더가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것은 촬영장비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PC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전 속에서 영상편집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선형편집 방식에서 벗어난 비선형(Nonlinear) 편집방식으로 영상물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으며, 특히 극영화의 편집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한편, 방송가에서는 비디오 포맷의 기동성과 간편함

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6년 9월 케이블 방송 <Q채널>의 ‘아시아 리포트’와 1997년 10월 지상파 <인천 방송>의 ‘리얼 TV’, 2000년 5월 KBS의 ‘VJ특공대’가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에게 1인 제작시스템으로서 VJ(Video Journalist)의 역할이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23]. 여기서 1인 제작시스템이란 기존의 최소 4-5명의 스텝(프로듀서, 카메라, 카메라 보조, 조명, 구성 작가, 운전 등)이 한 조를 이루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에서부터 자료조사, 연출, 촬영, 진행, 편집 등 전 과정을 혼자 해결하는 방식으로[24], 영상제작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PC통신은 동호회를 양산하였고, 이것은 90년대 후반 인터넷 시대로 연결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국내 포털사이트 안에 수많은 카페, 클럽, 커뮤니티 등 동호회가 만들어지면서 관심사를 공유한 사람들과 비교적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상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는 청소년들의 영상제작에 큰 영향을 끼쳤다. 흔히 영화제작과정은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 프로덕션(Production),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으로 구분한다. 1990년대 후반, 영화를 만들고 싶은 청소년들은 PC와 인터넷을 통해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영화제작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뒤, 이곳에서 배우와 스태프를 모집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덕션과정인 촬영단계에서는 가정용 캠코더를 활용하였으며, PC의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스트-프로덕션(편집)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촬영장비의 기술적 표준이 계속해서 바뀌고 업그레이드되면서 계속해서 영상의 완성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4년에는 기존의 29.97fps 방식 대신에 어느 정도 필름 룩(Film Look)을 구현할 수 있는 24fps 방식의 캠코더가 보급되었으며, DVtape 방식의 캠코더 대신 HD/HDV 캠코더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과거 SD급의 화질보다 확연히 좋아진 HD급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편집프로그램도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고, 컴

퓨터 사양도 업그레이드되는 등 촬영, 편집장비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DSLR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HD급의 영상제작이 가능해졌는데 이를 통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극장상영용 필름에 준하는 화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D급 촬영이 가능해졌는데, 어플(Application)을 이용하면 자체 편집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재진행형의 혁신적 사건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HD의 화질, 세밀한 편집프로그램과 인터넷의 사용까지, 즉 바로 촬영하여 편집 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거의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움직이는 촬영/극장을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는 매년 우수한 장비들이 쏟아지면서 일반상업영화에서 쓰일 법한 Full HD급의 전문가용 캠코더들도 개인이나 가정으로 보급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상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영화제작환경, 영상제작산업과 청소년영화제작까지 영상제작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영상제작의 장이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영상장비의 대중화를 통해 청소년 등 일반인들의 영상제작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수요를 창출해내어 영상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쓰임새와 관계없이 과도하게 유행하는 메이커/모델이 등장한다던가,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시판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3 IMF 구제금융시대의 도래

우리나라의 IMF 구제금융시대는 1997년 12월 5일 IMF로부터 1차 지원금 56억 달러를 제공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1년 8월 23일, IMF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고, IMF 관리 체제를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우연히도 이러한 IMF 구제금융체제의 시기에 고딩영화제, 청소년영상페스티벌(이상 1998년),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한국청소년영화제(이상 1999년),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이상 2001년)이 개최되었다.

이승정에 의하면, 사실 IMF 구제금융시대의 도래와

청소년영화제의 개최가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건 아니라고 한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영화 읽기와 감상 등의 청소년 영상문화운동이 1990년대 영상제작워크숍, 영화제작캠프, 비디오축제 등으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동력이 모여 자연스럽게 청소년영화제의 개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연히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25].

그러나 IMF 구제금융체제의 시기와 청소년영화제의 개최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서울시에서 서울YMCA에 보낸 공문 “98년도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결정액 변경통보[26]”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 IMF관리체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동참차원에서 실시되는 정부의 재정긴축운영과 '98 서울시 예산절감운영에 따라 '98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도 30% 절감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기 기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10% 절감집행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처음 결정된 10,000,000원에서 9,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한다. (*중략)

4. 기금지원사업이 경제난으로 위축된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중략)

또한 서울시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결산 간담회의 회의 자료의 총평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금년의 경우 국가경제 어려움으로 기업체 등 민간부문의 협찬이 끊겨 사업비 조달이 어려웠음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실시됨으로써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었으며 서울문화창달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27]

이 시기에 대한 청소년 연구를 보면, IMF시대의 경제위기와 실업문제는 가족문제와 가족해체로 이어지며,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심리적 불안정과 정신적 좌절, 방황 속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28].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시도

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사업을 추진하였다. 넓은 관점에서는 청소년영화제 또한 이러한 범주 내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의도와는 상관없이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 청소년영화제는 청소년을 위한 축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청소년영상페스티벌의 간사를 맡았던 안수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시대에 청소년영화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98년도에 처음 개최되었고, 그 시기가 전국적으로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그런 때이다 보니, 행사를 지원하는 정부 부처도 사업을 통해 국난극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중략) 청소년영화에도 그런 영향이 많이 담겨 있죠. 사실 전쟁이나 이런 (IMF) 상황이 닥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거든요. (중략)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해체, 청소년의 방황 그런 게 적지 않았어요[29].”

앞서 이승정이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 영상문화의 자연스러운 발전과 흐름 속에서 청소년영화제가 개최된 것이라 하더라도, IMF 구제금융시대와 맞물리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후원금과 협찬의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 같은 물리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청소년영화제라는 것이 국가적 경제위기 하에서 어려움을 겪던 청소년들에게 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2. 문화·교육적 요인

2.1 영상문화의 융성

1980년대부터 피어나기 시작한 한국의 영상문화는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는 영상문화의 다양한 흐름과 발전을 거듭한 시기였으며, 이러한 영상문화의 융성이 청소년영화제의 개최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제 5차 영화법 개정과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의 개최, 1987년 민주화 투쟁 등 굵직한 한국사의 사건들 속에서 서서히 영상문화의 씨앗이 뿌려지던 시기였다. 1985년 제 5차 개정 영화법 이후, 영

화제작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외화 시장이 개방되고 직배가 허용되면서 한국영화산업은 크게 변화를 겪게 되었고, 직배반대투쟁 등을 통해 한국영화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또한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치루면서 보급된 비디오테크와 당시 등장한 비디오대여업으로 인해 비디오감상이 새로운 여가생활로 떠올랐으며, 1980년대 말에는 '코리아 뉴웨이브'라 불리던 박광수, 장선우 등 젊은 영화감독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이전의 영화와는 다른 문체의식을 보여주었다[30]. 뿐만 아니라 동구권 개방정책으로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유럽의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영상문화는 본격적으로 융성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 초 대기업 자본이 한국영화계로 투입되면서 기획영화들이 등장하여 흥행에 성공하였으며, 독립영화제작사와 젊은 프로듀서들이 한국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1993년에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는 당시 서울관객 100만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후 관객들은 과거와 다른 한국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극장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1999년 한국형 블록버스터 <쉬리>의 흥행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부터 시작된 비디오대여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한때 전국에 35,000여 개의 비디오대여점이 성업을 하였으며[31], 서울YMCA 소속 좋은비디오숍경영자모임 '으뜸과 버금', 그리고 '영화마을' 등 비디오대여점 브랜드가 생겨나 고전영화, 예술영화 등 좋은 비디오를 소개하고 보급하는 영상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를 필두로, 서울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인디포럼, 서울인권영화제가 개최되었으며, 1997년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서울여성영화제, 부산단편영화제, 시민영화제 등이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울이 아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로 생각하던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여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영상문화의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제 개최의 붐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32].

1995년에는 영화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영화전문지들이 창간되었다. 격주간지 '시네필', '씨네21'과 월간지 '키노', '프리미어' 등은 각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영화와 비디오, TV 등 영상문화를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영화전문지의 등장은 영화비평과 영화담론을 생산,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영상문화 향유를 위한 길라잡이가 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네마테크가 설립되어 영화마니아층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문화학교 서울' 등 이러한 시네마테크들은 영화전공이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가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사와 이론 등을 공부하며, 영화비평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영화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방송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991년에 민영방송인 SBS가 창립되었으며, 1995년에는 케이블TV가 방송을 시작하여 다채널 방송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민영방송과 케이블TV의 등장으로 기존의 지상파방송에서도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이것은 시청률 제일주의의 병폐를 낳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완성도에 대한 노력 등 방송사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영화제는 1990년대 영상문화의 발전 속에서 다양한 자양분을 얻었으며,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영상교육과정 속에서 청소년 영상제작의 개념이 구축되었다면, 그리고 영상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촬영/편집 장비를 얻게 되었다면, 이렇게 영상문화의 융성 속에서 제작의 열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내내 사회적으로 영상이라는 것이 새롭게 조명되었고, 영상산업에서부터 영상문화운동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상'이 부각되면서 전 국민이 자연스럽게 영상문화를 향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흐름이 청소년영화제의 개최와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대학입시와 수상실적

청소년영화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영화제에서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돈보스코청소년영상제는 ‘나, 너, 우리 그리고 학교’를 주제로 한 작품을 공모하고 있으며, 청소년영상페스티벌의 작품공모주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작품공모주제는 ‘어린이, 청소년, 성장’이다. ‘청소년의 일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했 [33]’던 청소년영화제들은 이제 경쟁부문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시상제도는 청소년영화에 권위를 부여하였으며, 이 과정을 거쳐 청소년영화는 사회적으로 공인(公認)을 받게 되었다. 또한 시상제도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경쟁과 좋은 자극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시상제도는 청소년영화제의 발전원리 중 하나가 되었다.

초기부터 시작된 영화제들 중에서 순수하게 영화 상영만을 목적으로, 비경쟁영화제를 표방했던 고당영화제는 2004년 7회를 끝으로 휴지기에 들어갔지만, 시상하는 다른 청소년영화제들은 응모 편수와 상영작 수, 영화제 기간의 확장 등 영화제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뒤에는 시상제도와 대학입시와의 연관성이 있다.

주요 청소년영화제들은 대부분 1등상으로 후원받은 장관상을 시상한다. 그리고 장관상을 수여하는 청소년영화제는 전국대회 규모의 영화제로 간주되며, 이 영화제에서 3위 이내의 상을 받으면 대학 수시입학에 있어서 특별전형의 자격이 부여된다.

표 1. 영상관련 대학 수시입학 특별전형 지원 자격

대 학	대학 수시입학 특별전형 지원 자격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아래 공모전에서 3등 이내 수상자의 연출자 (최고상을 1등으로 간주) (*중략)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아래의 영상제 중 1개 이상의 영상제에서 3위 이내 입상자(*중략)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국내외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자 (*중략)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영상제작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련 국내 또는 국제대회 입상자 (*중략)
대진대학교 연극영화과	전국 규모의 공인된 연극(뮤지컬 포함), 영화, TV 또는 기타 매체에서 연기, 연출, 스텝 분야 수상자 (*중략)
추계예술대 영상시나리오전공	본교에서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방송·영상제·공모전 시나리오·연출 부문에서 상위 입상자 (*중략)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국내외 공인된 영화제 및 영상제 수상자 또는 참가자 (*중략)
청운대학교 영화학과 방송영상학과	전국규모의 관련분야 공모전 또는 경연대회 입상자(*중략)

*각 대학교의 2014년도 대학입시요강에서 발췌, 정리

실사 3위 이내의 수상을 하지 못하여 특별전형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화제 본선진출이나 기타 수상은 대학 입학사정관제 및 다른 수시입학시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기소개서 작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영화제에서의 실적이 대학입시에 중요한 요건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영화제에서 상을 받기 위해 영화를 제작하는 청소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더 좋은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편집 방식은 기성영화의 스타일을 닮아가며, 전체제작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청소년영화제 초기였던 10여 년 전, 청소년 수련시설의 영상제작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기술지를 작성한 이호연이 당시 청소년과 한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엄마 같은 경우는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구 그런 식으로 말씀은 하셨구요. 아빠 같은 경우는 고3이니까 공부도 해 가면서 하라고 그렇게……. 근데 속으론 그럴지도 몰라요. 상 타고 대학 보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믿어봐야죠.”(고3. 남)[34]

“공부 저보다 못 했어요. 공부 안 하는 성격이에요. 3학년 때 직업 반이라는 걸 갔어요. 그 형이 원래 방황을 쫓 했대요. 근데 선배 어머니께서 사진인가 이런 거 되니까 밀어준 거예요. 밀어주면서 너 이거 실패하면 다신 엄마 볼 생각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까 그 형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찍었대요. 다큐멘터리 찍었는데 그 형이 상을 탔어요. 우수상을 타 갖고 그 형이 대학을 들어갔어요.”(중략)(고2, 남)[35]

이렇게 영화조차도 수상실적을 위해 만들 수밖에 없는 고등학생들의 현실은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소년영화제의 개최 취지를 되짚어 보게 만든다. 영상문화시대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가정용 캠코더를 이용하여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과 대학입시를 위하여 고성능 캠코더로 영화제용 영화를 만들어 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영화제마저 입시용으로 바뀌버리는 과열된 한국의 교육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청소년영화제의 미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미 몇몇 청소년영화제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처음 내세웠던 청소년영화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IV. 나오며

청소년영화제의 개최는 시대의 흐름이었다. 청소년들이 영상문화의 수용자에서 창작자로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영화제라는 무대가 자연스럽게 열린 것이다. 이후 10여 년 동안 청소년영화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제 청소년 영상문화의 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영화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영화제가 본격적으로 개최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미 다양한 영상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주요한 청소년영화제들이 개최되어 그 틀을 잡아가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청소년영화제는 온라인 상영을 병행하였고, HD캠코더와 스마트폰, DSLR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완성된 청소년영화들을 상영하기 위해 상영시설을 정비하는 등 급변하는 영상문화와 산업에 호응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영화제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우선 경제·사회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단체의 역할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시기를 지나, 1990년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단체는 90년대 영상문화의 발전 속에서 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영상문화와 청소년의 관계 맺기에 관심을 가졌으며, 지속적으로 화두를 던지고 실천하는 역할에 충실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영화제는 영상기술의 발전과 대중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가정용 캠코더의 판매와 PC의 보급, 영상편집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도 쉽게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PC통

신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동호회를 통해 스태프와 연기자 등 인력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었으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청소년영화들이 청소년영화제를 통해 소개되어 인정을 받고 다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패턴이 만들어졌다.

셋째, IMF 구제금융시대와 관계가 있다. 청소년영화제가 시작된 1997년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해이다. 이 시기에 시작된 청소년영화제는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청소년을 위한 축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시기에 IMF구제금융체제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처와 고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청소년영화를 통해 마음껏 쏟아내게 되었다. 다만 이 시기 청소년영화제와 정부 지원정책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영화제에 영향을 끼친 문화·교육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영화제는 90년대 가득 피어난 영상문화의 영향과 교류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1990년대는 한국영화의 중흥, 국제영화제의 개최, 민영방송과 케이블TV 설립 등 다양한 영상문화의 발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 가운데 청소년영화제가 개최되었다. 또한 청소년영화제는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에게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이러한 시상제도가 대학입시와 연결되면서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수상실적을 중요한 목표로 삼기도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청소년영화제가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청소년영화제는 한국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 순간을 통과하면서 그 흔적을 담아내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 또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영화제를 통해서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은 낯설지만 흥미로운 일이다. 다만 그동안의 청소년영화제와 청소년영화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가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양한 연구결과를 비교하면서 청소년영화제라는 ‘장’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를 분석하기보다는 청소년 영상문화라는 큰 틀에서 청소년영화제의 위치를 찾기 위

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청소년영화와 청소년 영화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복합적인 연구결과를 축적하게 된다면, 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정용교, “영상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형성”, 한국청소년연구, 제9권, 제2호, 1998.
- [2] 서곡숙, “N세대 영상물의 한 양상 연구 : 1990년대 후반기 청소년영화제 다큐멘터리부문 수상작 품들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16호, 2001.
- [3] 김용남, “청소년 영상제에서 나타난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경향분석 : 2002 대구·경북 청소년 영상제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13호, 2006.
- [4] 안병태, 김용만, 정범석, “청소년 디지털 영화제를 통한 교육문화 u-진주 구축방안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9호, 2006.
- [5]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 *서울독립영화제 역대 수상작 목록*, 2013.
- [6] 함정태, *한국 가톨릭교회의 미디어교육 특성 연구 -가톨릭매스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pp.32-33, 1999.
- [7] 이승정, “한국YMCA 청소년문화운동론”, YMCA 간사논문, p.21, 1988.
- [8] 서울YMCA 청소년영상페스티벌 간사 안수경 인터뷰, 2011.12.15.
- [9] 독립영화협회의 낭희섭 인터뷰, 2013.06.18.
- [10] 신강호, “한국청소년영화의 제작현황”, 영화교육연구, 제2권, p.103, 2000.
- [11]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실무자 최현규 인터뷰, 2013.08.07.
- [12]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 제 2회 청소년영상페스티벌 사업계획서, 1999.
- [13]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제 2회 광주청소년영상페스티벌 세부계획서, 2000.
- [14] 이윤희,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 의 축제 공동체적 특성”, 사회와 이론, 제3호, pp.137-138, 2003.
- [15]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성낙원 인터뷰, 2013.06.10.
- [16] 이승정, “향락적 대중매체 - 비디오문화의 실태와 대책”, *聖心生活*, Vol.8, p.11, 1989.
- [17] 김수철, *한국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p.65, 2002.
- [18] 김수철, 위의 논문, p.77.
- [19] 서울YMCA 前 청소년활동부장 이승정 인터뷰, 2013.12.26.
- [20] 돈보스코청소년영상제 박경석 수사 인터뷰, 2013.07.19.
- [21]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처장 김경숙 인터뷰, 2013.07.20.
- [22]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제 3회 광주청소년영상페스티벌 사업계획서”, 2001.
- [23] 김용남, 앞의 논문, p.15.
- [24] 이종탁, 곽훈성, “방송프로그램제작에 있어 1인 제작시스템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8호, p.118, 2007.
- [25] 이승정, 앞의 인터뷰.
- [26] 서울시 문화과 ‘문화 860000-310’, 98’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결정액 변경통보, 1998.03.09.
- [27] 서울시 문화과, 99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단체 간담회 회의자료, p.10, 1999.01.29.
- [28] 심영희, “IMF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 - 위험사회의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pp.127-132, 1998.
- [29]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 간사 안수경 인터뷰, 2013.12.13.
- [30] 문재철, *영화적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 Post-Korean new wave cinema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p.9, 2002.
- [3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영화 유통배급 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pp.25-26, 1998.
- [32] 안지혜, *시민사회의 성장과 한국 영화의 역동적 관계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한국 영화의 정책,*

산업, 문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pp.108-112, 2007.

[33] 안수경, 앞의 인터뷰.

[34] 이호연, '중간애들'의 학교 밖 문화 - 청소년 수
련시설 영상제작반 아이들에 대한 문화기술지,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p.26, 2000.

[35] 이호연, 위의 논문, pp.75-76.

저 자 소 개

오 세 섭 (Se-Sub Oh)

정회원



- 1998년 2월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2005년 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예술사)
 - 2008년 8월 : 추계예술대학교 영상시나리오과(영상시나리오석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영상학과 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청소년영화, 청소년영상문화